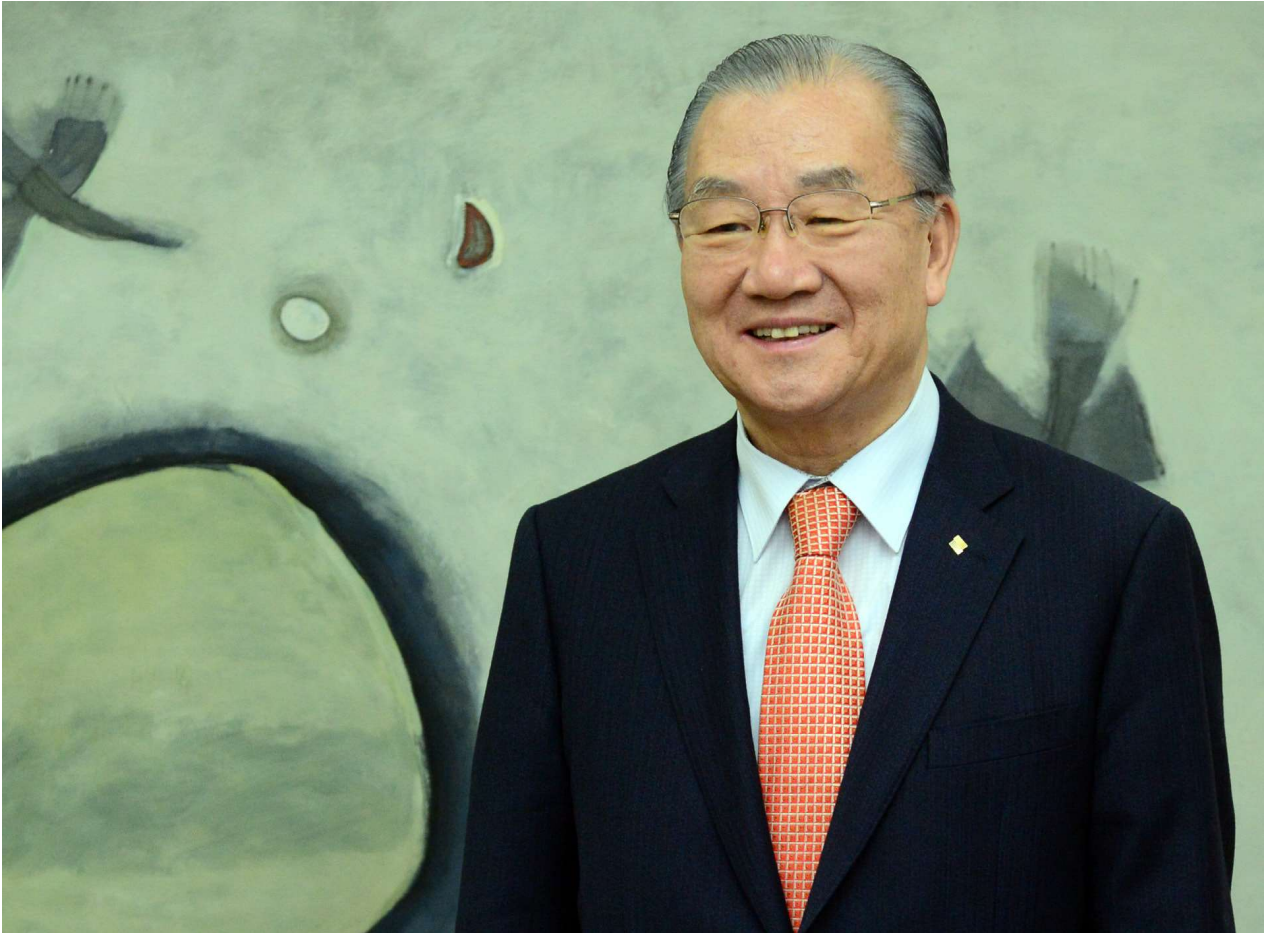


“양국 지도자 한일터널 건설 합의하면 기존의 갈등문제 일거에 해결 가능해”

‘한일터널 전도사’ 김인호 무역협회장, 양국 오가며 ‘맹활약’



‘한일터널 전도사’이자 ‘한일경제공동체 전도사’를 자임해온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한일 양국을 오가며 두 나라 관계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힘을 쏟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4월 18일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가진 특강을 통해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한일 양국이 경제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김 회장은 와세다 대학 이부카 기념홀에서 학생 및 교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1세기 한일 공동번영을 위한 양국 젊은 지식인의 인식과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김 회장은 강연에서 “1500년이 넘는 역사에서 양국이 호혜와 협력 관계일 때 경제적 번영을 지속했다”고 강조하고, “양국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국제협력의 이상을 공유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경제권 형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한일 공동체의 비전을 향해 경제통합을 이루며 협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한일 공동번영을 위한 방안으로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한일 경제각료회담 부활 ▲정기적인 정책 대화 채널 구축 ▲민간 교류 확대를 꼽았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중앙일보와 니혼게이지아신문이 지난 4월 12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인터뷰에서 한일터널 관련 발언을 해 주목된다. 세계평화터널재단 자문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질의응답 주요 내용을 발췌 요약한다.

특히 한일 간 경제교류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시아에서 인구 5000만 명, 소득 2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두 나라가 협력하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다. 역사적으로도 양국의 관계가 좋았을 때 양쪽 다 번영했다. 지금도 대외협력과 개방은 한국에 좋고, 일본도 잃어버린 20년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 문제로 양국 관계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

위안부 문제는 정부 간 합의가 된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이슈가 아니다. 아직 감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현상을 너무 인위적으로 조기에 풀어나가려고 조급해서는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 경제 협력관계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면 다른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김인호 회장 인터뷰 기사

한일자유무역협정(FTA)이 필요한가.

한일 FTA는 양국이 경제공동체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길이다. 세계적으로 패권주의적 대국주의 보호무역이 강해지는 지금, 신산업에 대한 한일 FTA를 통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경제가 2%대 저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5월 대선 이후 다음 정권에서 해야 할 경제정책이 뭐가.

기업가형 국가를 만들자는 게 무역협회의 구호다. 이게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경제를 움직이는 주역은 기업이다. 그동안 정부가 경제에 너무 관여하였기 때문에 많은 규제가 생겨났다. 시장경제의 기본으로 돌아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은 고용을 창출하고, 부의 분배와 복지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기업 활성화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평소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주장했는데.

한일터널은 경제공동체 중 한 부분인 인프라 공동체의 완결판이라고 생각한다.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생각한다면 한일터널은 필요하다. 이게 완공되려면 공사기간만도 10년 이상이며, 기술 교류도 엄청나게 이뤄질 것이다. 자연스럽게 양국의 정부와 기업, 금융 간 엄청난 협력이 필요해진다. 해저터널을 뚫고 나면 경제적 필요성에 의해서도 북한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양국 정치 지도자들이 한일터널 건설에 합의한다면 기존 갈등문제도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무협회회장으로 양국 지도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글로벌 의식을 가진 국가지도자라면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를 봐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중국이 전체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며 급부상할 때는 이념적으로나 철학적으로 뜻을 같이 하며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다. 양국 지도자들이 좀 더 큰 틀에서 문제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조주홍 기자